

유로존 경제상황 악화로 구제금융 요청국 증가

1. 유로존 가입국의 구제금융 요청 현황

□ 2012년 7월 말 기준 5개국이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태

- 그리스('10.4)를 시작으로 아일랜드('10.11) 및 포르투갈('11.4)이 구제금융을 요청한 데 이어 2012년 6월에는 스페인 및 사이프러스가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유로존(17개국) 중 5개국이 EU 및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함.
- 구제금융 요청국(5개)의 GDP는 유로존 전체의 17.4%에 이르며, 특히 스페인은 유로존 4위의 경제대국으로 유로존의 11.4%를 차지하고 있어 유로존 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.

<표 1> 구제금융 요청국의 유로존내 경제비중
(2011년 기준)

단위: %

구 분	그리스	아일랜드	포르투갈	스페인	사이프러스	합 계
G D P	2.3	1.7	1.8	11.4	0.2	17.4
총 수 출	1.9	7.7	2.7	13.2	0.3	25.8
총 수 입	2.6	7.7	3.1	14.5	0.3	28.2

자료: Eurostat.



□ 스페인,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은행부실 심화로 구제금융 요청

- 스페인 정부는 은행을 대신하여 지난 6월 9일 EU에 긴급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함.
 - 지난 7월(9~10일, 20일)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결과,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에서 스페인의 은행구조조정기금(FROB)을 통해 총 1천억 유로를 부실은행에 지원하고 7월 말까지 300억 유로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함.
 -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 이후 정부보증 없이 직접 부실은행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.
 -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은행 자기자본비율을 9%로 올리는 등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감독이 강화될 예정임.
- 향후 구제금융의 세부 지원조건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구제금융 지원 효과에 따른 시장안정이 가능할 전망이다.
 -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¹⁾은 지난 7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이후 급락했으나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며 불안 장세를 나타내고 있음.
 - 유럽안정화기구(ESM)의 스페인 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2012년 9월 이후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음.

□ 사이프러스, 그리스 국채 투자에 따른 은행부실 심화로 구제금융 요청

- 그리스 경제위기 심화로 그리스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사이프러스도 지난 6월 25일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전이되고 있는 양상임.
 - 2010년 기준 사이프러스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그리스로서 총수출의 21.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리스 관광객 감소로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음.
 - 사이프러스 은행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는 외국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전체의 6%로 유로존 3위이며, 그리스 국채 손실분담 참여로 3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.
- 사이프러스는 EU, ECB 및 IMF와 구제금융 세부조건에 대한 협의를 지난 6월 이후 진행 중이며, 러시아에도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함.

1) 4.0%(2009년 평균)→4.3%(2010년 평균)→5.4%(2011년 평균)→5.7%(2012년 1월~6월 평균)→7.1%(2012년 7월 9일)→6.6%(2012년 7월 11일)→7.3%(2012년 7월 20일).



- 구제금융 지원 규모는 100억 유로로 예상되며, 사이프러스는 구제금융 수혜에 따른 EU와 IMF의 긴축정책 요구 등 정책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러시아에도 5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별도 요청함.

2. 유로존 가입국의 구제금융 추가요청 가능성 증가

□ 유로존내 재정건전성 악화 및 높은 금융연계성으로 인해 재정 위기가 증폭되는 양상 초래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가 실물경기 침체 및 은행부실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.
- 유로존 회원국간 상호 국채 보유 및 은행 대출 비중이 높아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전이됨에 따라 구제금융 요청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□ 이탈리아 몬티 총리,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 시사

- 지난 7월 10일,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음.
 - Moody's는 지난 7월 12일 이탈리아의 국채신용등급을 'A3'에서 'Baa2'로 2단계 강등하고 등급전망은 '부정적'으로 유지했으며, 7월 16일에는 13개 이탈리아 은행의 신용등급을 1~2단계 강등함.
 - Fitch는 지난 7월 19일 이탈리아의 국채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기존의 'A-'와 '부정적'으로 유지함.
- 이탈리아는 2011년 기준 유로존 전체 GDP의 16.8%를 차지하는 제3의 경제대국으로서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그 규모와 파급효과는 유로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.
 - 이탈리아의 정부채무에 대한 2011년 중 이자지급액은 GDP의 4.6%에 이르렀으며, 2012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부채무가 1,816억 유로에 달하여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급증 및 정부채무 축소의 지연이 예상됨.
 - 이탈리아의 정부채무를 제외한 경제지표는 스페인 등 다른 구제금융 요청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, 과도한 정부채무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워 외부 불안요인이 부각될 경우 경제위기가 전이될 위험이 있음.



<표 2> 이탈리아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

단위: %

	2009	2010	2011	2012 ^f	2013 ^f
경제성장률	-5.5	1.8	0.4	-1.9	-0.3
재정수지/GDP	-5.4	-4.5	-3.9	-2.6	-1.5
정부채무/GDP	116.1	118.7	120.1	125.8	126.4
경상수지/GDP	-2.0	-3.5	-3.3	-2.2	-2.0

자료: IMF.

□ 슬로베니아, 은행권 자본 재확충을 위한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

- 슬로베니아 은행권은 자본 재확충을 위해 GDP의 10% 규모인 30억~35억 유로가 필요하지만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.
 - 슬로베니아 최대 은행인 NLB(Nova Ljubljanka Banka)는 대출업무 정상화를 위해 5억 유로 이상이 필요하지만, NLB의 최대 주주인 벨기에의 KBC(Krediet-bank ABB Insurance CERA Bank)는 지원 불가 의사를 밝힘.
- 슬로베니아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최근 6%를 상회하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은행 지원에 나서기도 쉽지 않으며, 정부가 보유한 은행지분 매각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.

<표 3> 슬로베니아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

단위: %

	2009	2010	2011	2012 ^f	2013 ^f
경제성장률	-8.0	1.4	-0.2	-1.0	1.4
재정수지/GDP	-5.6	-5.4	-5.7	-4.7	-4.2
정부채무/GDP	35.3	38.8	47.3	52.5	55.9
경상수지/GDP	-1.3	-0.8	-1.1	0.02	-0.3

자료: IMF.

【송 호 석】